

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
“예민해서 더 반짝반짝한 우리들의 오늘을 위하여”

9월 22일 (목) 11:30-13:00

아시아 연구소 영원홀

김밥과 음료가 제공됩니다

예민해도
괜찮아



이은의 (변호사)

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싸워 이겼다.

그 후 로스쿨에 입학, 변호사로 활동중이다.

저서로 2030 대졸여성으로 좌충우돌 직장생활혈투기를 다룬 [삼성을 살다_12년 9개월]가, 타인의 이야기이자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[예민해도 괜찮아]가 있다.

“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
침묵하거나 다수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.

그것들이 미덕인 양 내리닫는 건

사람을 얻는 방법이나

더 나은 결과를 얻는 선택이 아니다.

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

내가 가는 길에 진정성이 있느냐.

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귀하게 대할

자세가 되어 있느냐.”